

2019 경기문화재단 소외계층 문화나눔 공모지원사업 심의 총평

본 지원사업은 소외계층을 대상 문화나눔사업으로 무엇보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혜적 문화활동의 전형들을 넘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마다 놓인 환경이나 생각, 표현 등의 차이가 문화기획을 통해 어떻게 접근되어야 하는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서 심의에서 주요하게 살피고 논의되었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화다양성에 대한 타당한 이해를 하고 있고
- 이러한 이해가 적절하게 프로젝트의 내용과 방식으로 구현되었는가
- 문화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고 해석된 사업대상이 잘 설정되었는가
- 그리고 이들과 이뤄지는 프로그램이 상투적이고 피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각자의 삶들이 스스로는 물론이고 가족, 동네,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의 불안을 꺼내어 놓고 기댈 곳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이 힘에 부치는지 조차 잘 알거나 이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셨지만 다수의 계획서들이 '사람'에 대한 관심, '문화적 다름'에 대해 통찰을 갖고 고민하기보다 교육의 대상으로 예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여 매우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사자성을 바탕으로 섬세하게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파고드는 예술 작업의 연구나 장애 비장애 아동들이 일상과 비일상을 연계하고 만남과 관계를 삶으로 연결하기 위한 긴 호흡을 바탕으로 제안된 프로그램 등 깊고 열정적인 기획자들과 계획서들을 만날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문화다양성은 특정 영역, 특정 대상을 넘어 좋은 삶이나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화두입니다. 여전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만큼 모두에게 공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문화다양성에 관한,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방식에 관한 깊은 통찰과 접근에서 새로운 상상력들이 생겨나길 기대해 봅니다.

2019 경기문화재단
소외계층 문화나눔 공모지원사업

심의 총평

심사위원 서명 이완근
서명 이재준
서명 오세형